

바위는 우뚝 숲은 울창 생태·풍광의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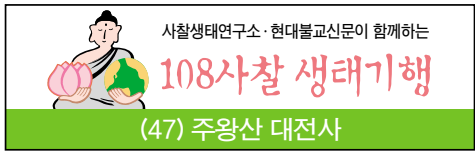
음식점, 숙박 시설로 가득한 대전사 진입로



천연기념물 제270호로 지정된 망개나무



왕원추리와 산제비나비



주왕산은 매봉산, 일월산, 백령산, 풍고산, 백암산, 보현산 등 1000m를 웃도는 고산준령과 함께 낙동정맥을 이루고 있다. 높이는 720m에 불과하지만, 튼실한 자연생태와 기묘한 풍광에서 손색 없는 큰 산이다. 이곳에 고산준령을 두고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주왕산 지명과 관련된 전설에 신라 무열왕 후손인 김주원(金周元)과 당나라 때 반란을 일으킨 주왕이 등장하지만, 시기적으로는 모두가 의상대사가 대전사(大典寺)를 창건하고 난 다음의 일이다.

주왕산은 들어가는 주변 환경이 도무지 국립공원답지 않다. 음식점과 숙박업소들이 좌우로 밀집한 진입로는 시장통을 연상케 한다. 지난 2002년 환경부가 무질서하게 들어선 상가들을 자연발생취락 지구로 변경해주는 바람에 더욱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다.

대전사는 마당이 넓지만, 가람배치가 산만한 것은 잦은 병화로 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까닭이다. 경내 조경 역시 이렇다할 특징 없이 밋밋하다. 그런데도 대전사가 아름다운 절로 탐방객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은 보광전 뒤로 우람한 자태를 보여주는 기암(奇岩)과 주변의 자연때문일 것이다.

주왕산 들머리부터 탐방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 기암은 마치 산(山)자를 세워 놓은 듯한 모양이다.

산내암자인 백련암 숲에서 매미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다. 매미는 같은 나무에 여러 종류가 붙어산다. 그러면서도 한꺼번에 울지는 않는다. 한꺼번에 울면 자기 짝들이 짝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매미는 말매미대로, 유지매미는 유지매미대로 또 참매미는 참매미대로 각기 따로 운다. 자연의 질서는 이렇게도 신비하다.

백련암에서 광암사로 가는 묵밭 길에는 돌콩, 새팥, 쥐방울덩굴, 박주가리, 갈퀴나물, 고들빼기, 망초, 개망초, 달맞이꽃들이 어울려 저들의 세상을 이루고 있다. 산자락과 개울가로는 노인장대풀, 사위질빵, 꽃머노리밥풀, 맥문동, 마타리 등도 관찰된다.

화사한 묵밭은 나비들의 야유회가 열리는 곳이다. 산제비나비, 사향제비나비, 네발나비, 모시나비, 상제나비, 왕세줄나비, 꼬리명주나비 등이 날아든다.

산제비나비는 1년에 두 차례 나타나는데, 봄에 나타나는 것보다 여름에 보이는 것이 좀더 크다. 날개 표면 중앙에는 황색색의 비늘가투가 발달해 있고, 뒷날개 뒷면의 황백색 띠무늬가 선명하여 다른 제비나비와 쉽게 구별된다. 이름 그대로 산속의 계곡에서 많이 관찰된다.

백련사에서 계곡을 건너오면 주방계곡이 시작된다. 계곡의 초입

에 해당하는 기암교-자하교 구간은 자연 휴식년제 구간으로 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주왕산이 자랑하는 산절벽도 이 구간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대전사에서 주왕암과 폭포골로 가는 길은 걷고 싶은 사찰 숲길 가운데 하나이다. 갈참, 굴참, 졸참, 떡갈, 신갈 등 참나무류를 비롯하여 다양한 활엽수들이 띠숲을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군계일화는 천연기념물 제207호인 망개나무이다. 망개나무는 씨앗의 발아율이 극히 낮아서 멸종할 위험이 매우 높은 나무이다. 현재 주왕산을 비롯해서 월악산-주출산-속리산 등 일부 백두대간 지역에만 분포되어 있는데, 모두가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다. 둥근잎평의비름꽃은 망개나무와 함께 주왕산에서 보호되고 있는 희귀식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곳 주왕산에서만 분포하고 있는 희귀종이다. 들나물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으로, 가지 끝의 잎은 분홍색을 띠며, 둥글고 두툼하다. 진분홍빛 자잘한 꽃송이들이 주먹처럼 뭉쳐서 피어난다.

음식점·숙박업소 등으로 시장통 연상, 잦은 병화로 가람배치 산만 망개나무 등 희귀 보호 식생 관찰, 부처손은 주왕산의 환경지표종



대전사는 우람한 자태를 보여주는 기암과 주변의 자연환경이 아름답다.

숲길과 함께 하는 주방계곡은 주방천의 상류로, 갈겨니가 우점종으로 서식하고 있다. 갈겨니에 비해 몸집이 작은 버들치는 얕은 계류에서 관찰된다. 대전사를 지나면 강폭이 넓어지면서 물고기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몇 해 전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주방천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가 약 27종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 자가사리는 환경부에 의해 보호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한편 주방천은 새들의 무대이기도 하다. 호반새, 물까마귀, 물총새, 큰우리새 등이 대전사 주변 주방계곡에서 관찰된다. 여름 땀금류로는 붉은배새매, 소쩍새, 새매, 수리부엉이, 솔부엉이 등이 서식하고 있다.

팔각정에 이르면 오른쪽 계곡 건너 주왕암으로 가는 길이 나 있다. 주왕암은 대전사 '큰 절'에 견주어 '안 절'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주왕암 약수는 물을 마시면 지혜로워진다는 '홍명수'로 소문이 나 있으나, 주왕굴로 올라가는 철제 사다리가 약수터 위로 지나가고 있어서 등산객들의 신발 등으로부터 흙과 이물질 등이 떨어져 약수로 스며들 위험도 높고, 장마철이 되면 지표수가 그대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다. 게다가 관리가 부실하여 여름철에는 벌레들이 들어갈 위험도 높다. 수시로 수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주왕암 앞 숲길로 생태탐방로가 이어진다. 주왕산은 전체적으로 소나무와 활엽수가 분포하고 있다. 주왕산은 산의 경사면에 따라서 소나무림과 활엽수림의 분포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전형적인 식생대의 천이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연화봉, 병풍바위, 학소대, 급수대, 시루무 등 어슬렁어슬렁 활곡은 기암절벽들이 노출되어 있어서 암곡식생의 다양성을 잘 보여준다. 바위 절벽에 꼭대기 하듯이 붙어서 자라는 부처손은 암곡식생의 대표적 식물이다. 부처손은 망개나무와 둥근잎평의비름꽃과 함께 주왕산의 환경지표종이다.

편백림과 흡사한 부처손의 잎은 부채살처럼 퍼져서 자란다. 상록성 여러해살이 양치식물이라 습도에 민감하다. 물기가 공급되지 않거나 공기 중 습도가 낮으면 흡사 아이들 주먹처럼 잎이 안쪽으로 둥글게 말린다. 그러다가 비라도 내리면 습도가 올라가면 다시 새파랗게 되살아난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1회 특별 법회는 2003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간, 티베트 망명정부가 자리하고 있는 다람살라 남갈 사원에서 있었습니다. 이 특별 법회의 의미는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달라이라마께서 한국 불자에게 하신 최초의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한국 불자와 달라이라마의 만남은 많았습니다. 거의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회는 달랐습니다. <입보리행론>을 교재로 삼아, 제1장 보리심 공덕 찬탄품부터 제4장 보리심 불방일품까지 한 구월 한 구월 달라이라마께서 그 의미를 짚어가며 읽어내려 가셨습니다. 경전 속 활자에 불과했던 산티데바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산티데바의 가르침에 달라이 라마의 승결이 더해지면서 <입보리행론>은 수행 지침으로 되살아 난 것입니다.

2004년 10월 델리에서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2회 특별 법회가 봉행되었습니다. 나흘간 진행된 이 법회에서는 <입보리행론> 제5장 회계정지품부터 제8장 선정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 2회 특별 법회 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제안으로 제2장 죄업 참회품을 독송을 하던 순간, 강당을 가득 메웠던 낭랑한 독송 소리는 조용한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티베트 화승과 티베트 불자까지 젖어들은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오는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가 다람살라 남갈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됩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매년 법회를 시작할 때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법문을 열어갑니다.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은 우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며, 신행의 목표점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소중한 가르침이 펼쳐지는 순간을 함께 하십시오.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 - 보살행의 실천에 들어가는 길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꽃인 '보살의 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보리행론>은 총 10장 - 제1장 보리심 공덕품, 제2장 죄업 참회품, 제3장 보리심 전지품, 제4장 보리심 불방일품, 제5장 회계정지품 제 6장 인욕품, 제7장 정진품, 제8장 선정품, 제9장 지혜품, 제10장 회향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티데바의 <입보리행론>은 티베트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여러 종의 번역본과 종파별로 수많은 주석서가 있습니다. 10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아주 쉽게 전달하고 있는 대표적인 논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교재 입보리행론은 청진스님이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드립니다.

".....보리심이라는 것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리심에 대해 생각하면 슬프기도 하지만 기쁘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보리심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즐거울 때 보리심을 수행하면 즐거움에서 오는 우울감, 자만심,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슬플 때 보리심을 수행하면 절망이나 좌절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 등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보리심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겨우 몇 달, 몇 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허공에 다할 때까지 기억하고 실천하겠다고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자주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허공이 존재하는 한 중생이 존재하는 한 저 또한 여기 머물러 중생의 고통을 소멸하게 하소서. (입보리행론 3장 보리심 전지품 22)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내면에 힘이 솟아 오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제 인생에 뚜렷한 목적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2003년 12월 28일 한국인을 위한 법문 중에서.

- | | |
|--|--|
| A팀 : 12월 10일 - 19일(10일간) -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20만원)
인천-델리-다람살라-델리-인천 | B팀 : 12월 3일 - 18일(16일간) - 불교성지순례와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65만원)
인천-델리-아그라-비라나시-보드가야-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가르-기원정사-다람살라(법회)-델리-인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소 : 인도 다람살라 남갈사원 대법당 참가신청 및 문의 : 본 행사는 법회진행비가 포함되어 있어 신청하신 분들을만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 : 여수 석천사 (전속스님 061-662-1607) |